

4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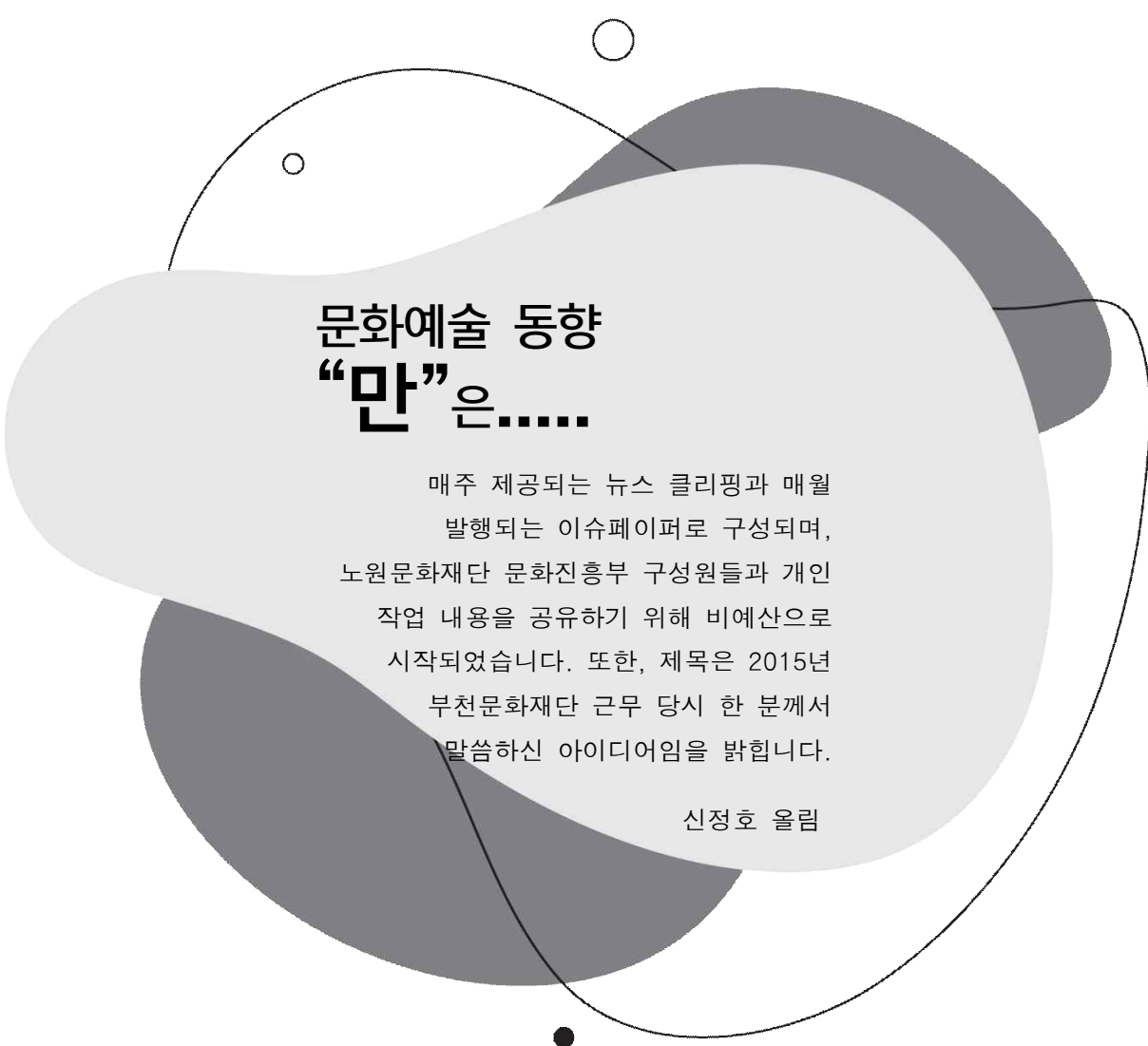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2025.12.22.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0000



문화예술 동향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개인 작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주요목차

(제40호) 다양한 사회 변화 신호 속에서 드러나는 지속가능성의 조건	1
(제39호) 예산 확대의 시대에서 생태 전환의 시대로	3
(제38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구조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6
(제37호) AI에 쏠린 국가, 문화와 돌봄은 어디로 가는가	9
(제36호) 문화균형발전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	12
(제35호) 균형 잃은 문화정책, 지속 가능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다시 묻다	15
(제34호) 균형과 지속가능성의 재정립	18
(제33호) 지역이 무너진 문화정책, 균형과 공정으로 다시 세워야	21
(제32호)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24
(제31호) 재정·인구·문화 위기 속 지역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정책·산업 혁신 필요 ..	27
(제30호) 한류 성과에도 지속성 위기, 격차·연대 부족 속 균형 문화정책 요구	30
(제29호) 문화산업 확장 속 재정위기·운영 불투명·저작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과제	33
(제28호) 문화경제·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격차 해소·지속가능 발전·포용적 문화 확산 ·	36
(제27호) 정부 조직 개편·K컬처 확산·지역재생·AI·복지 강화 등 미래 대응 위한 정책 전환 본격화	39
(제26호) 지방문화 재정·제도 강화, K-컬처 확산·창작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추구	42
(제25호) 한국 문화예술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기	45
(제24호) K컬처 300조 목표는 재정·인프라 부족과 예술인 지원 미흡으로 공허한 구호될 위험	48
(제23호) 한류 성장과 문화산업 활황 속 사회통합·지속가능성 도전	51
(제22호)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균형, 창작 생태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재구조화	54
(제21호) 한국 사회의 다층적 도전과 문화·도시 재생의 전환점	57

주요목차

(제20호) 문화예술기술 융합과 지역 활성화 속 예산 효율·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 요구 증가	40
(제19호) 문화예술 예산 갈등과 사회문제 심화 속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문화 혁신 필요	63
(제18호) 공공문화지역의 균형 발전과 포용사회 전환 위한 재정·제도 혁신 본격화	66
(제17호) 재정 위기 속 지역소멸 대응과 문화 분권 실현 간 균형 과제	69
(제16호) 지역문화재단 확산 속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정부 정책 연계	72
(제15호) 사회적 포용과 지역 균형발전, 창의적 자립 기반 구축	75
(제14호) 기후위기·지역 균형·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78
(제13호) 대선 문화정책 한계 속 경기침체·청년불안·고령사회·AI·문화재생 부각	81
(제12호) 자립을 넘어 공동체 연립, 지역문화 확산과 공공문화 이슈 대두	84
(제11호) 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 글로벌 진출과 지역 활성화 모색	87
(제10호)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문화 인프라 확충, AI·예술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 전환	90
(제09호) 문화예산 감소, 인구 소멸 우려 속 공연·전시 해외 호평	92
(제08호) AI의 등장과 21대 대선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94
(제07호)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안 모색	96
(제06호) 티켓플랫폼 우려 속 공연·장소·장우류 1인 가구·중·노년층 문화복지 고민 깊어지는 자체	98
(제05호) 초개인화시 확산·경제위기 속에서 역할 재정립과 지속가능 증진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문화예술계	101
(제04호)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교육·예술 복지 강화와 공간 활용, 축제 예산 문제 등 논의	103
(제03호)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문화재단, 신뢰와 지속가능성 자기 고민 필요	105
(제02호) '문화변화'에 직면하게 있는 지역문화 예술계	107
(제01호) '문화한국 2035' 발표 속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그러나 재정난으로 축제 중단 위기	109

(제40호) 다양한 사회 변화 신호 속에서 드러나는 지속가능성의 조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변화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인구감소와 재정 압박, 생산가능인구 급감, 이주배경 증가 등은 행정·노동·교육 체계의 재설계를 필요로 합니다. 한편 문화복지 확대, 문화산업 성장, 빈집·근대가옥 재생은 지역 회복력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문화재단 인사 혼선과 비정규직 격차는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드러냅니다.

- 지방 소멸 가속 속에 자치·재정 분권과 행정 구조 개편 필요성이 한층 커져
 - 자치분권 강화 위해 중앙권한 지방 이양 '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경기신문, 25.12.08.)
 - 정부 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국제:지방세 7:3 상향, 지방의회법 신설 등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 추진
 - '인구감소지역' 어느 정도일까...비감소지역 0.1% 늘 때 12.5% 줄어(뉴시스, 25.12.12.)
 - 최근 10년간 인구감소지역은 12.5% 줄고 청년은 15.5%·고령층은 35%로 양극화가 심화돼 행정·재정 개편이 필요
- 이주배경 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급감이 겹치며 노동·교육·지역 구조 재설계의 필요성 증가
 - '단일민족'? 통계에서 사라졌다... 국내 20명 중 1명, 이민·귀화 배경(JIBS, 25.12.08.)
 - 이주배경 인구가 271만 명(5.2%)으로 늘며 노동·교육·지역 구조 전반에 변화가 가속
 - 韓생산인구 비중 세계평균 하회 '초읽기'(metro, 25.12.14.)
 - 한국 생산가능인구가 68.6%로 36년 최저를 기록하며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절벽 위험
- 시니어는 소득 감소에도 자기 소비가 늘고, 가구소득은 둔화되며 양극화 확대
 - '시니어' 평균 수입 532만원...지갑 얇아져도, 여가 지출 '전 세대 1위'(뉴스1, 25.12.10.)
 - 시니어 소득 5,32만원이지만 여가 지출 최다(연 100만↑ 64%), 자녀 지원 종료로 자기 소비 확대
 - 지난해 가구소득, 5년 만에 증가율 '최저'...양극화는 심화(뉴스후플러스, 25.12.09.)
 - 가구소득 증가율 3.4%로 둔화, 상·하위 격차 5.78배로 늘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
- 지방정부 재정적자와 세수 감소로 필수사업 중단과 재정 절벽 우려가 커지며 구조개편 필요성 급증
 - 신유정 시의원 "전주시 재정 한계...필수사업 중단 우려"(뉴시스, 25.12.08.)
 - 전주 재정적자 1,355억·지방채 6,083억으로 한계, 26년 시비 미매칭 62건 200억 등 필수사업 중단 우려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적 재정 절벽' 직면....근본적 수술 시급"(정인뉴스, 25.12.08.)
 - 경기도는 취득세 2.8조 감소·매칭 부담 확대 속 재정 절벽 위기, 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지적
- 기부가 지역문화 동력으로 작동하며 문화복지·예술교육 기반이 확장 흐름
 - 천안문화재단 '기부자의 밤 2025'...문화홀씨 1억7천만 원 결실(뷰티경제, 25.12.08.)
 - 천안예술의전당은 23년 이후 560건·1억 7천만 원을 모금해 장애인·문화소외계층 지원 등에 활용
 -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로 '1인 1악기 배워요'(BBS NEWS, 25.12.09.)
 -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인 1악기' 확대...7개교 200명 통기타 성과 발표, 예술교육 대표사업으로 정착
- 세계 도시 경쟁은 '문화·창의 생태계'가 좌우되며, 지역은 문화산업·브랜딩으로 미래 대비 중
 - '도시 미래 준비도' 세계 1위는 런던...서울은 10위 올라(EBN 산업경제, 25.12.04.)
 - 세계 도시 미래준비도 평가에서 런던 1위, 서울은 인간 중심·혁신 강점으로 10위에 올라
 - "강원 인구유입 위해 지역문화산업 생산 확대 필요"(강원도민일보, 25.12.12.)
 - 강원 세미나 "인구유입엔 문화산업 생산 확대·거점도시 연계 강화 필요"...모든 세대에서 문화산업이 유입효과
 - '케데헌' 성공 방정식을 대구에...K-POP·뷰티·패션·푸드 묶어 도시 브랜드 재창조(매일신문, 25.12.11.)
 - '케데헌' 사례 기반 K-POP·뷰티·패션·푸드 융합 한류 도시 브랜드 전략을 추진 필요성 제안
- 디지털 전환 가속에 지역 기반 업종 급격 붕괴
 - '문화 실핏줄' 끊긴 전북도...예산 있는데 서점이 없다(전북도민일보, 25.12.07.)
 - 전북 서점 143곳→136곳, 임실·순창 무서점화로 우선구매 예산 27억에도 구입처 153→99곳 급감
 - AI가 삼킨 '남산동 인쇄골목'...희미해져 가는 '대한민국 인쇄업계의 맥박'(대구일보, 25.12.11.)
 - AI·플랫폼 확산으로 남산동 인쇄골목 인쇄소가 2000곳→400곳으로 급감하며 생태계가 붕괴 위기

- 박물관 유료화로 재원이 늘어도 투자·재투자 구조가 취약
 - “국립박물관 5000원~1만원 유료화면 약 350억 수익…재정 구조개편 필요”(뉴스핌, 25.12.10.)
 - 국립박물관 유료화로 350억 수익 예상되나, 재투자 구조 미비해 제도 개편이 필수
- 빈집·근대가옥의 ‘방치→재생’ 과제…계획 부재와 재정 한계 속 주민 협력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
 - “농어촌 빈집 급증 속…기본계획 부재·지자체 지원 한계”(데일리안, 25.12.12.)
 - 빈집 급증에도 상위 ‘빈집기본계획’ 부재와 지자체 인력·재정 한계가 핵심 문제
 - 철거 위기 근대가옥, ‘인문학당’으로 다시 호흡(연합뉴스, 25.12.14.)
 - 광주 동구 근대가옥이 주민·행정 협력으로 보존돼 인문학당으로 재생, 연 1만 명이 찾는 문화 플랫폼으로 부활
- 산업유산·빈집이 창작공간으로 재탄생하며 도시 재생과 문화 활력의 새 모델로 부상
 - ‘산업유산의 문화적 재탄생’… 포항문화재단, 동빈문화창고1969 개관(세계일보 25.12.08.)
 - 포항 구 수협냉동창고가 산업유산 재생을 통해 복합문화공간 ‘동빈문화창고1969’로 개관
 - 빈집이 예술가 작업실로…부산 곳곳 불 밝힌 창작 이야기(연합뉴스 산업경제, 25.12.10.)
 - 부산 빈집 13곳에서 16명 예술가가 활동, 창작공간 재생 성과를 공유하는 전시·발표가 12~15일 열려
- 골목문화 보존 조례로 생활문화 자산을 체계화해 원도심 정체성과 활력 강화
 - 울산 중구의회 ‘지역 대표 자원인 ‘골목문화’ 지킨다”(뉴시스, 25.12.09.)
 - 골목문화 기록·보존 조례로 생활문화 자산을 체계 관리해 원도심 정체성 회복과 문화 활력 확보 추진
- 뮤지컬 시장 관객 증가 기반의 실질 성장 국면에 진입
 - ‘5천억 시대’ 앞둔 뮤지컬 시장, 가격 인상 효과 넘어 ‘실질 성장’ 궤도(데일리안, 25.12.12.)
 - 25년 첫 5,000억 돌파 전망…작년 ‘가격 효과’와 달리 올해는 관객 증가가 견인한 실질 성장세
- 미술계 예술투자·네트워크 서비스를 강화하며 고액 자산가 시장 확장
 - 사교와 예술투자 동시에 …‘미술 멤버십’ 시대(매일경제, 25.12.12.)
 - 서울옥션 연 1,500만 원 ‘프리미엄 멤버십’ 도입, 수수료 할인과 프라이빗 서비스로 슈퍼리치 네트워크 공략
- 축제 ‘지속가능한 지역 플랫폼’으로 전환에 대한 고민
 - “일회성 행사 시대는 끝났다”… 제주가 다시 꺼낸 축제 기준, ‘지속가능성’(JIBS, 25.12.11.)
 - ‘행사’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플랫폼’으로 전환…주민 중심·지역성 강화가 새 기준으로 자리 잡는 흐름
- 문화재단 인사·운영의 절차성과 독립성 흔들리며 거버넌스 신뢰가 약화
 - 원주문화재단 대표 연임 논란…원주시·이사회 ‘강대강’ 대치(뉴시스, 25.12.09.)
 - 임기 만료 직전 긴급 상정·의결해 공모 진행 중인 시 정책과 충돌, 절차적 정당성 부족
 - 장성철 시의원,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잇단 사퇴 비판(부천신문, 25.12.10.)
 - 대표가 임기 수개월을 못 채우고 반복 사퇴하며 재단 불안 심화, 시의회는 정치적 사퇴·인사 부실 비판
 - “단체장 인사관 된 문화재단”…직장 내 괴롭힘·특혜채용 등 잡음 계속(매일신문, 25.12.11.)
 - 대구 6개 문화재단 간부 다수가 공무원·정계 출신으로 채워지며 독립성 훼손, 갑질·특혜채용 논란이 반복
- 문체부 축소되었던 문화형 사회적기업 정책 재확대 시도
 - 李大통령도 문제 제기…문화체육관광형 사회적기업 다시 달린다(서울경제, 25.12.12.)
 - 문체부 예비사회적기업 22곳 재지정…취약계층 지원·일자리 창출 강화,李大 “축소된 사회적기업 다시 확대
- 아일랜드의 예술인 기본소득 실험은 창작시간·사회적 편익을 높여
 - K-콘텐츠 300조 시대, 창작자 안전망이 필요하다(오마이뉴스, 25.12.120.)
 - 아일랜드는 예술인 2,000명에 월 200만 원 기본 소득을 지급해 창작 시간 증가·사회적 편익 확대 효과 입증
-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격차 및 처우 개선 필요
 - 비정규직 929만명 시대… 차별은 ‘여전’(브릿지경제, 25.12.10.)
 - 비정규직 929만명(41.5%)으로 1년 새 6만명 증가, 임금은 정규직의 53.5%로 격차 심화